

서킷브레이커로 시작해 매수 사이드카로 마무리한 한주

KOSPI 8,124pt(+4.6%), KOSDAQ 1029pt(+3.2%)

해외 사항

지정학적 갈등 완화 진짜 믿고 싶은 TACO

- 미국 주식시장 상승(S&P500 +1.8%, NASDAQ +2.5%,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7.9%). 핵심은 미국 이란의 합의 기대. 트럼프 대통령, 이란 공습 취소. 합의 서명 가능성 언급. 생산자물가지도 헤드라인 예상치 상회했으나 근원 예상치 하회하며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음. 유가/금리/달러 하락 및 위험자산 선호심리 회복. 반도체가 상승 주도. AI 인프라 투자 지속되었으나 최근 노이즈 발생하며 차익실현 매물 출회. 위험자산 선호심리 회복에 저가매수세 유입

수급

지정학적 갈등의 완화와 기다리고 기다리던 외국인의 귀환

- KRX 현물 기준 개인 -4.3조, 외국인 +2.1조, 기관 +2.4조원 순매수. 외국인 5월 6일 이후 (KRX 현물) KOSPI 지속 순매도했으나 지정학적 갈등 완화 기대감 속 순매수 전환. 매수 업종은 그간 차익실현 매물 출회 지속됐던 반도체, 대형주 중심

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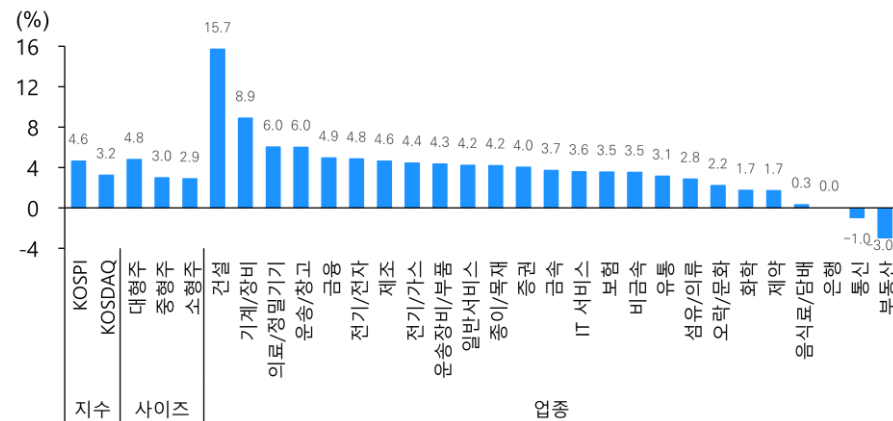
오후 2시 상승폭 일부 반납에도 지수 5% 상승 마감

- 금일 KOSPI, KOSDAQ 각각 4.6%, 3.2% 상승. 월요일 서킷브레이커, 화요일 매수 사이드카, 수요일 매도 사이드카, 목요일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금요일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의 엄청난 변동성 장세였던 한주. 결국, 돌아보면 매수 기회였다. 장 초반 8.6% 급등하며 매수 사이드카 발동. 양국 약간의 최종 합의 관련 스탠스 차이는 있으나 결국 합의 방향성에는 시장 동의. 아시아 주식시장 동반 반등. KOSPI +4.6%, NIKKEI225 +2.8%, 상해종합 +1.1%, 대만가권 +2.4%. 업종별로 대부분의 업종 상승한 가운데 그간 지수 하락에도 살아남았던 유통(백화점), 통신(방어주), 화장품 등 차익실현 매물 출회. KOSDAQ도 강세 지속되던 장비주 일부 차익실현 매물 출회. 바이오텍은 반등 실패
- 핵심은 오후 2시경 발생한 지수 급락. 펀더멘털 약재라기 보다는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된 수급 부담을 매물 출회 요인으로 추정. 첫째, 글로벌 은행들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헤지펀드 레버리지 배팅을 제한하고 있다는 블룸버그 보도가 화제. 외국계 스왑, 레버리지 포지션의 추가 확장 여력이 둔화될 수 있다는 경계감 둘째, 최근 일부 대형주 주가 상승폭 과대로 ETF 리밸런싱 이슈 존재. 반도체, AI 인프라, 전력기기 등 최근 급등 업종 및 테마 ETF에서 일부 종목의 편입비중이 Cap 초과. 정기변경 과정에서 기계적 매물 또는 선제적 포지션 조정 발생 가능성. 삼성전기(-5%), LG이노텍(-3.4%), 가온전선(-22.2%), LS ELECTRIC(-3.1%) 등 종목이 그 대상. 필자는 두 번째 요인이 유효하다는 판단. 분봉 기준 KOSPI 급락 시점과 삼성전기, LG이노텍 등 하락 시점 유사. 다만 리밸런싱은 수급 이동의 성격임으로 펀더멘털과는 무관하기에 지수 방향성에 영향줄 이슈는 아님
- 전략) 현재 시장 하방압력으로 작동하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 인상 우려는 실제 협상 타결시 5월을 정점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 5월 소비자/생산자 물가 모두 헤드라인 대비 근원 물가는 예상치 하회하며 에너지를 제외했을 때 인플레이션 약화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 여전히 변동성이 완전 해소된 것은 아니나 결국, 실적 주 중심 압축 대응 유지는 AI 추세 훼손되지 않는 이상 지속될 것. 다음주 FOMC, BOJ 등 주요 통화정책회의가 변동성으로 작용하겠으나 급작스러운 강력한 매파적 대응 존재하지 않는다면 수출과 가격 상승이 증명중인 2분기 호실적으로 시장 시선 무사히 이동할 전망

당일 투자자별 순매수대금

(단위: 억원)	KOSPI	KOSDAQ
기관	23,770	6,223
외국인	21,165	-3,432
개인	-43,199	-3,130
거래대금	511,276	159,675

일간 수익률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